2024년 중 충북경제 역성장 배경 및 산업 편중도 평가

<차례>

Ⅰ. 충북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Ⅱ. 2024년 중 충북경제 역성장 배경
Ⅲ. 충북지역 산업 편중도 평가
Ⅳ. 시사점

Ⅰ. 충북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 국가데이터처는 2025.12.23일 「2024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잠정)」을 공표하였다.

1. **2024년 중 충북경제(실질 GRDP 기준)는 1.5%(잠정) 줄어들며 2023년(-0.7%)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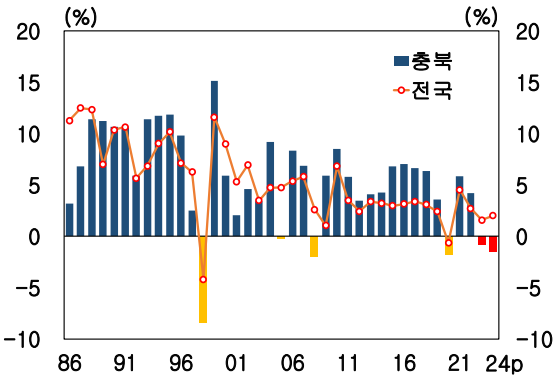
1.1. 충북경제의 역성장은 1998년(-8.4%, IMF 사태), 2005년(-0.3%, LG전자 이전), 2008년(-2.0%,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1.7%, 팬데믹, 반도체 부진), 2023년(-0.7%, 반도체·2차전지 부진) 이후 6번째지만, **2년 연속 역성장은 통계 공표(1985년) 이후 처음이다.**

1.1.1. 특히 2009년 이후 충북경제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이례적이다. 역성장 시기를 제외한 충북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5.6%로 전국(+3.3%)보다 높다.

2. **또한 2024년 중 충북경제 성장률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23년은 16번째).**

최근 충북경제는 2년 연속 역성장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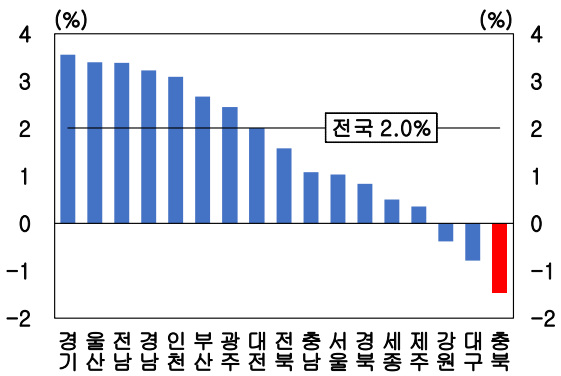
충북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주 : 1) 지역내총생산(GRDP, 실질)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

2024년 중 시·도별 경제성장률



주 : 1) 지역내총생산(GRDP, 실질)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Ⅱ. 2024년 중 충북경제 역성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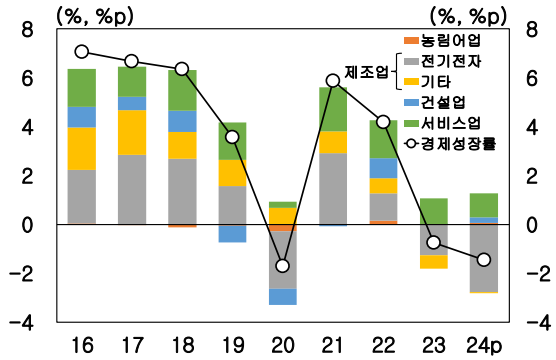
3. **2024년 중 충북경제의 역성장은 제조업[1], 특히 전기전자*의 부진에 기인한다.** 서비스업(실질기여도 +0.98%p), 건설업(+0.21%p) 등이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제조업(-2.83%p)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기전자의 실질기여도는 -2.77%p로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낮았다.

* 전기장비(이차전지, 전력기기 등), 전자부품(반도체 등), 정밀기기 등이 포함된다.

4.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충북의 산업구조(2024년 명목 GRDP 기준)는 제조업 비중(42.1%)이 서비스업(41.5%)을 상회한다. 전국(각각 26.6%, 58.0%)에 비해 제조업은 15.5%p 높지만 서비스업은 16.6%p 낮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도 전기전자(15.2%, 전국 8.8%)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전기전자 부진이 역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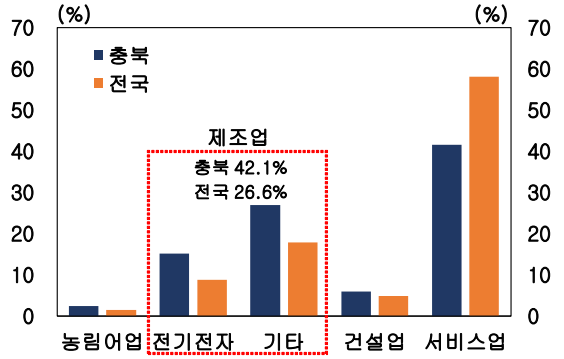
충북지역 경제성장률 실질기여도 추이



주 : 1) 지역내총생산(GRDP, 실질)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충북지역 산업구조(2024년)



주 : 1) 지역내총생산(GRDP, 명목)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1 이차전지 업황 부진

5.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부진하였다.** 2024년 중 충북지역 이차전지 수출은 21.8% 줄어들며 2023년(+1.7%)의 소폭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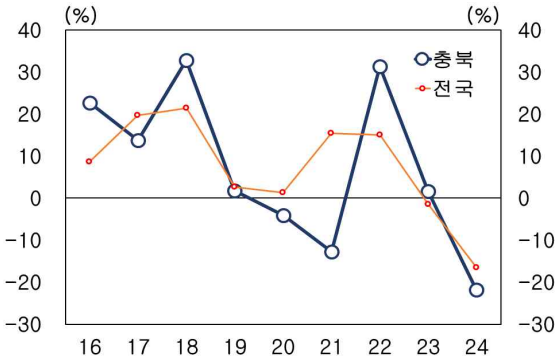
*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2023년 하반기에 캐즘에 진입하였으며 2024년 중에는 캐즘이 심화된 시기로 평가된다.

1) 국가데이터처는 지역내총생산 중 제조업을 음식료품·담배, 섬유·의복·가죽, 목재·종이·인쇄, 석탄·석유·화학제품,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전기전자·정밀기기, 기계 운송장비 등 7개로 분류한다.

5.1. 전기장비 생산도 이차전지의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39.1% 줄어들며 2023년(-0.3%)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차전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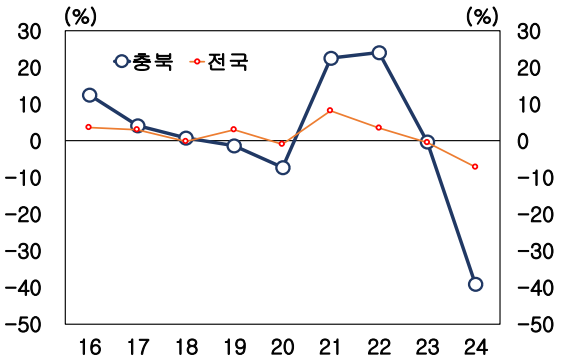
충북지역 이차전지[1] 수출 증가율



주 : 1) 축전지 기준(MTI 4단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기장비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

충북지역 전기장비 생산[1] 증가율



주 : 1) 제조업 생산지수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2 전자부품(낸드플래시) 생산 감소

6. **전자부품 생산이 낸드플래시 등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회복 지연으로 감소하였다.** 2024년 중 충북지역 전자부품(반도체 등) 생산은 5.6% 줄어들며 2023년(-7.4%)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충북 외 주요 생산 거점인 경기도의 반도체 생산이 32.3%(2023년 중 -0.1%)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2].

6.1. 2024년 중 충북지역 반도체 수출(HBM 제외*)은 12.8%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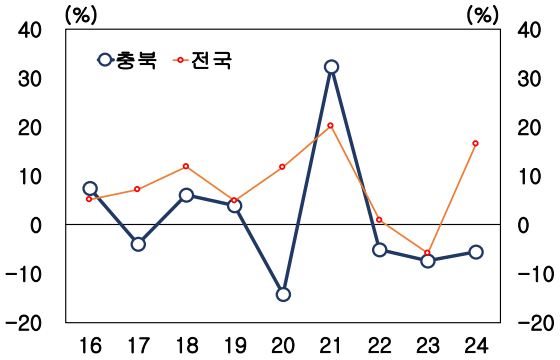
* 충북에서는 주로 HBM에 대한 패키징(임가공) 공정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 실적에는 계상되었으나 생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중에는 동 공정의 일부가 생산 실적에도 반영됨에 따라 2025년 1~11월 중 충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하였다.

▶ 충북지역 반도체 수출(HBM 제외) 증가율 : 2023년 중 +0.3% → 2024년 중 -12.8%

2)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3년 중 하강 사이클(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에서 2024년 중에는 회복 국면(2023년 감산 효과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재고 정상화 및 수요회복)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충북 반도체의 주력 생산 품목인 낸드플래시는 D램보다 기술격차가 적고 시장 참여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딘 편이다.

전자부품 생산 감소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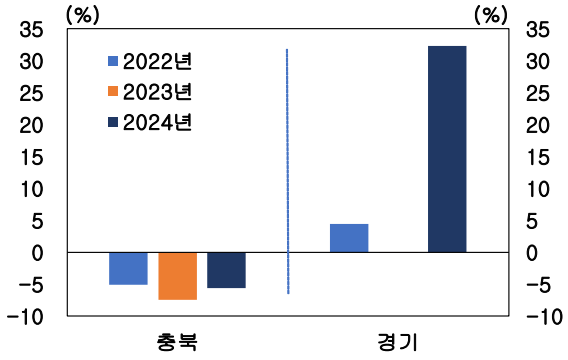
충북지역 전자부품 생산[1] 증가율



주 : 1) 제조업 생산지수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기도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과 대조적

반도체 거점별 전자부품 생산[1] 증가율



주 : 1) 제조업 생산지수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Ⅲ. 충북지역 산업 편중도 평가

7. **지역 내 특정 산업의 경기변동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편중도 점검을 통해 산업의 다각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개념[3]을 활용하여 산업 편중도를 산출한다.

8. **충북의 산업구조는 타 시.도에 비해 업종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충북지역 산업의 HHI는 2015년 721, 2020년 783, 2024년 717로 17개 시·도 중 각각 11번째, 7번째, 10번째 순위였다.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7개), 전기·가스·증기업, 건설업, 서비스업(14개) 등 24개 업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국가데이터처>).

8.1. 지역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의 2024년 집중도(CR1)도 충북의 경우 중간 정도의 순위(9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9. **또한 충북은 제조업 내 산업 편중도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HI는 1,148로 15개 시·도** 중 10번째, 상위 3개 업종의 집중도(CR3)는 47.2%로 11번째 순위였다.

* 2023년 제조업 내 23개 업종(생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광업제조업조사<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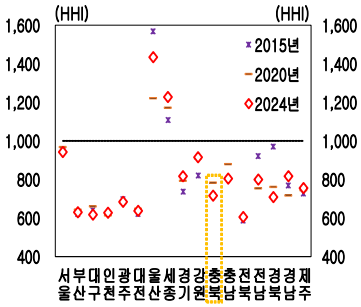
** 세종, 제주는 결측치가 많아 제외하였다.

3) 시장 내에서 특정 주체가 갖는 집중도를 파악하여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을 합산하여 구한다. 1,000 미만이면 경쟁적인 시장을 뜻한다(한경경제용어사전). 이는 특정 지역의 산업 편중도를 살펴보기 위해 활용 가능하며 산출 값이 낮을수록 산업구조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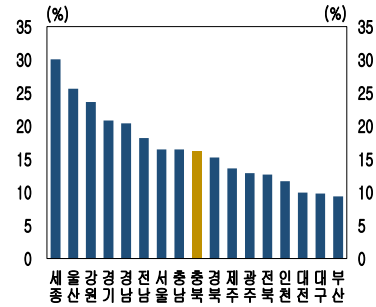
충북은 산업 편중도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산업 편중도(전체 산업 기준)[1]

<H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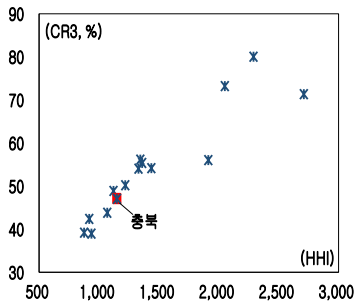
<CR1[2]>



주 : 1) 지역내총생산(명목 부가가치) 기준
2) 지역 내 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의 비중(충북은 전기전자), 2024년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제조업 내 산업 편중도[1]

<HHI와 CR3[2]>



주 : 1) 2023년 생산액(광업제조업 조사) 기준, 세종·제주 제외
2) 상위 3대 산업(충북은 전기장비, 식료품, 전자부품)
자료 : 국가데이터처

Ⅳ.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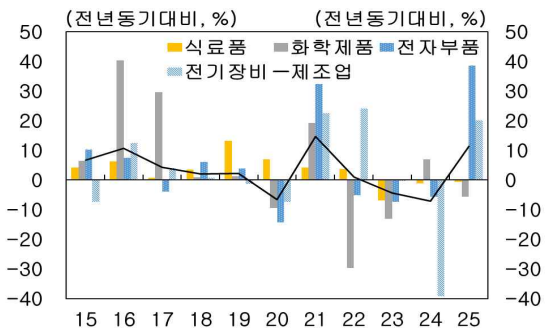
10. **과거 충북경제는 특정 산업의 부진을 여타 산업의 성장이 보완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이차전지, 반도체 등 지역 내 2대 주력산업의 부진이 동시에 발생*하며 경제가 역성장하였다.**

*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데에도 불구하고 범용 반도체의 회복 속도가 더뎠으며, 이차전지는 캐즘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시기였다.

10.1. 다만 2025년 들어 충북경제는 AI 시장을 중심으로 고성능 반도체(HB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성장세로 전환되었다[4].

업종 상호 간 완충 역할을 담당하며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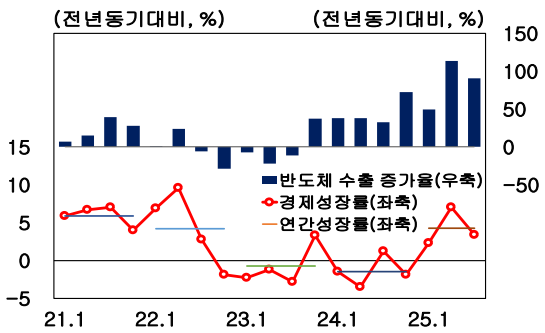
충북지역 제조업 생산 증가율



주 : 1) 2025년은 1~10월 중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충북경제는 성장세로 전환

반도체 수출과 충북경제 성장률[1]



주 : 1) 24년, 25년 성장률은 잠정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가데이터처

4) 2025년 1/4분기 중 충북지역 지역내총생산(실질, 실험적 통계)은 전년동기대비 2.3% 늘어나며 증가로 전환된 후 2/4분기 중, 3/4분기 중에도 각각 7.0%, 3.4% 증가하였다.

11. **충북은 특정 산업의 편중도가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형태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특정 업종의 부정적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완충장치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으로 의미한다.**

11.1. **다만 2023~2024년의 역성장 상황은 지역 내 주력산업의 부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충북경제 전체에 큰 충격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불안 요인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12. **바이오*,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충북경제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SK하이닉스의 HBM 생산시설(M15X) 가동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산업 편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반도체 경기의 하강 국면 전환에도 충북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타 주요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의약품 산업은 팬데믹 시기에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자동차부품은 충북 내 제조업 생산(2023년)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12.1. **이는 이차전지의 생산 비중 축소에 대한 대비에도 중요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청주(오창)사업장을 마더 팩토리(차세대 제품을 테스트하고 양산성을 검증)로 운영할 방침이어서 지역 내 2대 산업으로서 이차전지의 위상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특정 산업의 부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제2, 제3의 주력산업 육성이 중요해 보인다.

2 우수 중소기업 육성

13. **장기 생존력과 기술 축적 능력을 갖춘 견실한 중소기업을 지역 산업의 중추로 육성해야 한다.** 이는 경기변동과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충북경제의 산업구조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3.1. 정책 자금 지원 대상을 재무적 안정성(외부 충격 시 고정비 감내 능력 등), 사업 구조 견실성(핵심 공정·기술의 내재화 정도 등), 기술역량 축적성(숙련 인력의 장기근속 여부 등), 지역 정착성(지역 고용 유지율 등) 등 질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균형 잡힌 산업 포트폴리오 구축

14. **경기 민감도가 낮은 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산업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충북의 산업 포트폴리오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 내 주력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성장형 산업으로 경기 민감도가 높아 변동성이 큰 편이다.

14.1.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은 경기와 무관하게 수요가 유지되는 업종으로 산업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